

# 제21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SDG's 14, 해양생태계보전 보전을 위한  
지속협의 역할과 과제

추진기구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참여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섬·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장정구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namukkun@greenkorea.org](mailto:namukkun@greenkorea.org)

.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은 2016년 4과 14팀에서 2019년 6월 현재 5개과 16개팀임. 1과 2개팀이 늘었지만 여성가족국 다음으로 인천시에서 규모가 작은 국임. 해양친수과의 경우에는 2개팀에 불과함. 현재 인천시의 정책순위에서 해양,수산,도서,항만,공항 분야가 인천시의 예산,정책의 관심대상 후순위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인천의 미래가 섬·바다에 있다는 인식 하에 부서확대와 업무확대 등의 조직개편이 필요함.

. 2019년 해양항공국예산은 약1,162억원으로 2016년 약 890억원에 비해 270억원이 증가함. 해양항공국예산 중 절반 이상이 도서지원과(약 665억원)의 예산임. 도서지원과의 예산은 기초생활기반확충(특수상황) 약 230억원, 여객선 운임지원 약 146억원으로 과예산의 절반이 넘는 상황임. 균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하드웨어뿐 아니라 인천 도서지역의 가치발굴 등 소프트웨어부분에서의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임.

.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해양환경팀의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문제, 해양생태계보전, 해양오염문제, 도서지역생활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양도서환경과로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와 마리나산업육성 등을 기획하고 집행할 조직이 필요함. 섬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담팀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섬지역 가치발굴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T/F구성이든 관광진흥과와 관광공사로 나뉘어 있는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거나 부서간의 벽을 허물어야 함.

. 인천 섬과 바다, 친수공간에 대한 자연생태, 인문지리, 역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발굴 연구조사가 필요함. 해상안전, 해양오염, 해양쓰레기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자체의 역할증대가 필요함. 해양경찰과 해수청에만 인천항, 인천앞바다 등의 해사안전과 관리, 해양오염과 해양쓰레기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 확보,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인천경기만지역의 섬바다는 과거부터 한반도가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었음. 현재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인천경기만 섬과 바다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임. 현재 주민들의 생활사는 우리나라의 인문지리, 역사문화의 보고를 현재 주민들의 생활사를 체계적으로 채록하는 작업이 필요함. 또한 인천경기만지역은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인 비무장지대와 서해안도서·갯벌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자연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함. 유인도 뿐 아니라 무인도와 특정도서에 대한 정기적으로 자연환경조사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여 그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전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예) 백령도 점박이물범, 콩돌해안, 사곶해수욕장, 대청도의 대청부채와 실거리나무, 옥죽포 해안사구, 소청도의 원추리와 동백나무, 주상절리 등

. 인천섬지역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임. 쓰레기문제가 곧 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공공근로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학생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고 쓰레기수거를 위한 추가적인 국비편성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함. 어업쓰레기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개선 교육, 생활쓰레기문제에 대한 지역공동체차원에서의 해결책마련, 외부기원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함.

. '경관은 그 시대 그 지역의 가치와 수준을 반영한다'. 인천섬에 대한 관심증대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섬의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경관이 훼손되어 섬의 전체적인 가치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 강화도와 석모도, 덕적도와 백령도 등 비교적 큰 섬을 시작으로 경관훼손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음. 또한 서해5도지역의 경우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인천시가 선정할 지질사이트인 대청도 고목나무바위 인근지역이 군의 요새화사업으로 경관이 훼손되기도 했음. 인천시 차원에서 인천섬지역의 경관가이드라인마련하고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해양경찰, 해양수산청에 맡겼던 해사안전에 대해 인천시 차원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 각 도서 지역만 화물처리량, 항만 내 연료소비량과 저장량통계수집, 해양선박사고 위기관리 기본 매뉴얼 제정·개정 및 운영, 계절별 해양선박사고 안전대책 수립, 해양사고(선박) 행동 매뉴얼 운영 등이 필요함.